

## 考古美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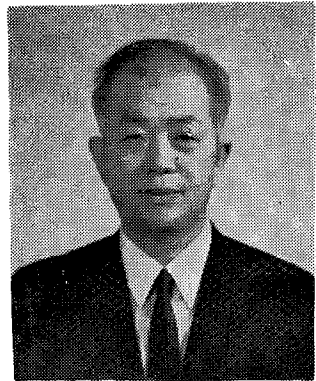
### 國立博物館 職制改編

一九七一年五月二十八日 國立博物館職制가 改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人事發令이 있었다. 職制改編內容은 一九七一年 五月 二八日字 大統領令 第六五二九號로 管理課가 庶務課로 되고 國立博物館의 館長을 補佐하기 爲하여 館長 밑에 二級 學藝研究官을 두던 것을 副理事官으로 두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研究職으로 二級學藝官이던 尹炳武氏는 行政官인 副理事官이 되었으며 管理課長은 庶務課長으로 發令되었다. 結果의 本博物館은 行政力만이 強化되고 學問研究의 機能은 더욱더 完善된 結果가 되었으며 學藝研究職의 職級을 格下시키고 陞級의 길이 막히게 된 셈이다.

### 新任館長 黃壽永教授 就任

前任 金元龍館長이 就任 一年 四個月 만에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人類考古學科主任教授로 復歸轉任하고 九月二五日 第三代 國立博物館館長으로 東國大學校教

授 黃壽永氏가 任命 發令되었다.



### 國立博物館 扶餘分館 開館

一九六五年 九月 一七일에 公開한 扶餘博物館 新館이 六年만에 完成되어 八一五日 開館하고 九月 一日 國務總理 文公長官 文公委員 內빈이 參席한 가운데 開館式이 行해되었다. 설계자는 김수근氏, 九千三百萬원의 工事費를 투입하였으며 古典양식을 가미한 現代式博物館 建築으로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建立된 現代式 시설을 갖춘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개관식을 맞이한 扶餘博物館의 陳列현황은 다음과 같다.

#### 新館 一層

扶餘를 中心한 百濟時代의 遺物全般에 걸친 展示를 하였다. 佛像類는 扶餘 금성산에서 옮겨 세운 높이 二·八五m의 石造如來立像을 비롯하여 扶蘇山城

송월대에서 發見된 金銅如來立像等 百濟時代의 佛教彫刻의 양식을 分明하게 갖춘 貴重한 資料가 展示되었다. 瓦塼類는 扶餘郡 規岩面의 리 절터에서 發掘된 山景文塼 鳳凰文塼을 비롯한 여덟가지의 우아원숙한 文樣塼이 展示되었고 그밖에 百濟 瓦當의 간명우아한 特點을 밝힌 많은 蓮花文瓦當과 銘文이 있는 瓦塼類도 展示되어 있다. 扶餘 구아리 傳天王寺址에서 出土된 희귀한 銅製鬼面도 아울러 展示되어 있으며 金石文資料로서는 扶餘 扶蘇山 삼층사 부근 잡석장에서 發見된 사택지적비가 있어서 當時의 세련된 六朝의 百濟 楷書體를 밝혀 주고 있다. 靑銅器類로는 서울 城東區 風納洞 風納里 土城자리에서 發見된靑銅製 鎚斗等이 展示되어 있다. 이밖에 土器·金屬·石玉·壁畫模寫等 百濟文化의 정수가 陳列되었다. 以上 百濟時代 遺物이외에 扶餘地方 및 그인접 지역에서 出土된 선사시대와 高麗時代 銅鍾等 主要遺物의 一部도 展示되어 있어 향토문화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 新館 二層

扶餘 및 그 인근 지역에서 出土된 陶藝文化中 新羅·高麗·李朝等 各時代의 磁器類와 土器들이 展示되어 있으며 이 二層 展示室은 特別展示로서 各時代別로 重要한 遺物을 配제 전시할 것이다. 百濟館

百濟館은 原來 李朝時代의 假사건물로서 新館이 新築되기 전에는 이 博物館의 주 陳列室이었으며 이 展示室은 本館 新築과 더불어 參考陳列室으로 꾸며다 이 參考館에는 전문가들이나 學生들이 研究하고 또 參考삼을 수 있는 重要자료들에 대하여 出土상황 出土地 상호연관 관계등을 가능한한 明示하여 展示함으로서 편의를 주도하고 있다.

#### 庭園

庭園에는 扶餘郡 임천면 가신리에서 옮겨는 보광사 중창비와 扶蘇山 서쪽에 옮겨는 당유인원기공비등 國寶級 金石文資料와 이외에 扶餘 一圓에 흩어진 塔刹 石燈材·石佛片·建物초석등 많은 石造資料들이 展示되었고 扶蘇山 남쪽 지금 博物館 館長私宅에서 옮겨온 높이 一·六m 구경 一·六五m의 원만한 구형의 부여석조가 육각 정자안에 展示되어 있다.

### 本博物館 特別展示會

#### 韓國假面特別展

一月 一日—三一日 韓國假面 特別展示 國寶로 指定된 河回·屏山假面 및 別山臺 鳳山 달 固城 五廣大 統營 五大方相氏 其他山臺假面 信川 및 寧邊 假面 海州 假面等 河回洞 本博物館 서울大學 博物館 文化財管理局 任省宰氏 假面劇

研究會所藏品等 五四點이 展示되었다.

### 李朝文房家具展

二月 一日—三月 三二日 李朝文房家具展示 선비의 사랑방을 꾸미고 그周圍에 本館所藏品과 個人所藏品으로 文匣 四方卓子 冊床 書案 硯床 코비 筆筒 硯滴等 文房具類를 展示 하였다.

### 湖巖菟集韓國美術特別展

四月 一六日—六月 一五일  
裝身具 青銅器類 土器 陶磁器 金工藝品 繪畫 書藝等 二〇三點이 展示되었고 이번 出品遺物을 全部 수록한 原色八面黑白八〇面 解説과 英文부록 六〇面을 合하여 四·六倍版 一五〇面의 湖巖菟集韓國美術特別展 目錄을 發刊했다.

### 李朝扇面畫 特別展示

七月 一日—八月 三二日

國立博物館所藏品의 展陳中에서 三二點을 골라 展示했으며 거의 實제 사용하던 것이다. 名畫三齋라 일컬어는 謙齋 玄齋 觀我齋와 檀園 金弘道의 作品 그리고 사인화가로 이름이 높은 恭齋 凌壺 眞宰 豹庵 北山 古藍의 필치가 扇面에 전개된다. 景제의 眞景山水인 金剛山 正陽寺 海印寺 洗劍亭圖等 山水畫가 대부분이고 그의 傳神 花鳥畫들이 있다.

### 百濟武寧王陵遺物特別展

十月 二二일부터十一月 三十일까지 百濟武寧王陵遺物特別展示會를 開催하였다.

이번 展示會에는 王과 王妃冠의 純金製冠飾을 비롯하여 八八種 八〇〇餘點의 遺物을 陳列展示하였다. 이 遺物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三國時代 遺物中年代와 墓主가 뚜렷한 唯一한 例이며 誌石을 비롯한 많은 遺物이 完存하여學界는 勿論 一般의 關心이 至大하였다. 이 展示를 위하여 本館에서는 東館中央홀과 一·二室 등 모두 三個室에 展示室을 마련하여 中央室에는 石獸와 誌石 青磁類를 第一室에는 古墳內의 實大寫眞(黑白·天然色) 및 科學處理된 棺材와 埴을 第二室에는 貴金屬類 青銅器類 木製品 등을 展示하였다. 그리고 「遺物寫眞」總遺物目錄「發掘記」 「百濟史上에 있어서의 武寧王」등을 수록한 特別展示圖錄과 記念葉書를 發行하였다.

### 韓國大學博物館協會 聯合展示

五月 一七일부터 二四일까지 慶熙大博物館에서 開催하였으며 서울大學校 博物館所藏 부적 浮판의 二百여점이 출품 展示되었고 最終日인 二四日には 年例

總會를 가졌으며 午前에는 崔淳雨 鄭永鎬 兩教授의 講演이 있었고 午後에는 실무자세미나가 있었다. 講演會演題 李朝의 사인화가(崔淳雨) 沃川地區 古蹟 調査報告(鄭永鎬) 실무자세미나 博物館資料의 分類目錄法(李蘭映) 文化財 보호법해설(장인기)

### 淑明女子大學校 博物館開館

淑明女子大學校에서는 六月 一〇日藥學大學 建物인 科學館 一層에 民俗品과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에서 所藏 保留하고 있던 女性 裝身具一百五〇여점을 비롯해서 民俗品과 新羅土器 磁器類 硯리개 등을 陳列 開館하였다. 앞으로 女性關係資料 蒐集研究에 期待되는 바 크다.

### 第一四回 全國歷史學大會開催

六月 二五·二六兩日間 歷史教育研究會主管으로 檀國大學校 工學館에서 開催되었으며 考古美術關係 發表는 다음과 같다.

韓國銅戈에 대하여 (崔夢龍)

青陽 百濟瓦窯址調査 (鄭良謨)

方壇形異型石塔에 關하여 (秦弘燮)

先史時代 異形青銅器의 一例(韓炳三) 朝鮮前期 梵鐘樣式에 대한 研究 (鄭永鎬)

姜豹庵論(崔淳雨)

### 新羅 於宿述干墓 調査報告 特別展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에서는 지난 八月 一八日—九月 二二日 實施했던 榮州郡 順興面 台壓里 뒷산의 新羅時代 壁畫古墳에 대한 調査 特別展示會를 十一月 一六일부터 十二月 一六일까지 한달간 同博物館 二層 陳列室에서 展示하고 있다.

이번 展示된 것은 調査當時의 黑白天然色 기록사진과 實測圖面 壁畫橫寫圖 墓誌銘拓本等이다.

### 蔚州 書(誓)石遺蹟調査

東國大學校 博物館에서 실시중인 東海岸地區(今次蔚州地區)佛蹟調査時 調査班 黃壽永 文明大諸氏는 지난 一九七〇년 十二月 二四일 慶南蔚州郡 斗東面 川前里에서 古新羅時代의 書(誓)石遺蹟을 發見하였다.

이 書(誓)石은 높이 一·七m, 넓이 九·五m나 되는 巨大한 岩石인데 上段에 繪文과 下段에 銘文및 線畫들이 새겨져 있었다.

上段에는 同心圓, 菱形, 山形 같은 부호 또는 그들의 變形을 陽刻 또는 點刻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物形이나 혹은 개념을 표현하려던 象形의 刻文으로 생각된다.

下段에는 銘文과 線畫들이 서로 뒤섞이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묘사되고 있다. 主銘文은 「乙巳」로 시작되는 각기 時代가 다른 二種의 銘文이 三백여자나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古新羅史研究에 크게 기여하게 될 史料가 될 것이다.

線畫들은 말·새·배·웅·人物·行列圖등 수많은 그림들이며 이것들은 아주 소박하면서도 古拙하게 표현되어 新羅繪畫研究 내지 당시의 풍속을 연구하는데 훌륭한 資料들이 될 것이다.

이 書(簠)石은 銘文 또는 繪紋들로 이루어 보아 대개 五세기에서 新羅末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의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全貌가 밝혀질 것이다.

### 公州南山里 先史墳墓發掘調査

本館 考古課에서는 지난 二월 二六일부터 三월 一七일까지 약 二〇간일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보는 石蓋土壙墓群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 墳墓들은 거의 도굴 파괴를 당하여 출토유물은 없었으나 住民의 말에

의하면 磨製石劍을 出土하는 先史墳墓이다. 또 이 墳墓群 사이에 小形의 垂直單壙墓를 數基 발견하여 先史時代의 새로운 墓制를 확인하였다. 이번 발굴에는 館長 金元龍, 學藝研究官 尹武炳, 考古課長 韓炳三, 公州分館長 金永培씨 등이 주관하였고 公州敎大 朴容鎮, 公州師大 安承周 諸氏가 參觀하였다.

### 東三洞 貝塚發掘調査 完了

本館 考古課와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人類考古學科가 共同으로 착수한 釜山 東三洞 貝塚發掘調査가 四月 一日부터 約 三〇日間에 걸쳐 今番의 第三次調査를 마지막으로 끝마쳤다. 今年度에는 六九年 八月에 實施된 第一次發掘地域과 七〇年 五月의 次一次地域을連結하여 堆積層의 層位關係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데 主力하였다. 이번 發掘에서 특히 重要な 것은 櫛文土器의 문화층이 형성되기 전에 앞서 最下層에는 無文丹底土器 및 隆起文土器를 出土하는 層이 存在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調査研究 結果는 報告書로서 刊行될 예정이다. 三次에 걸친 調査에는 金元龍館長을 團長으로 學藝研究官 尹武炳, 考古課長 韓炳三, 金鍾徹 서울大學校에서는 任孝宰 細夢龍 文化財管理局에서는 金正基 研究室長 美術工藝系長 李浩官 池建吉 趙由

典 李鍾哲 釜山大學 鄭澄元 諸氏가 參加하였다.

### 三田渡 百濟時代遺蹟調査

本博物館 考古課에서는 서울特別市城東區 松坡 江岸 斷崖面 하부에 노출되어 있는 遺蹟의 發見申告를 받고 五月二日 긴급 調査를 하게 되었다. 이 地域은 蠶室島나루 건너편으로 이 일대가 水面 高八·九m의 堆積砂層을 이루고 있다. 이 遺蹟은 堆積砂層의 地下 五m 가량에 묻혀 있었는데 가로 3m 세로 2m의 長方形 크기로 참나무 줄기를 서로 엮어 그 위에 나무일을 덮은 엉성한 지붕과 같은 것이었다. 地下 五m의 깊이를 파내려 가는 동안 百濟土器 數片和 櫛文土器 몇편이 發見되었을 뿐 遺構가 發見된 곳에서는 遺蹟이나 遺物이 없는 것으로 보아 遺構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 생활하던 것이 아니라 上流地方에서 흘러 내려와 원위치에서는 유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온 나무를 原子力研究 所에 年代 측정의 의뢰한 결과 一四四〇±七〇, B·P 實年代로 따져서 五·一〇년이 나왔다. 따라서 이 遺構는 百濟時代의 것으로되며 上流인접 地域의 百濟時代 遺蹟과도 連結된다 하겠다.

### 昭陽江 水沒地域 發掘調査

建設部計劃의 昭陽陂 축조 工事로 昭陽江 연안의 地域이 水沒됨에 따라 일대의 先史遺蹟에 對한 發掘調査가 文化財管理局의 主管으로 五月 九일부터 六月中旬까지 調査되었다. 이 地域에는 先史時代 北方式 고인돌 一五여개가 있었고 또한 春成郡 북상면 내평·리江邊的 櫛文土器時代의 遺蹟을 調査하였는데 내륙 깊숙히 들어와 있는 이 櫛文土器遺蹟은 住居址의 一種으로써 그 양식이 매우 특이하였다. 이 住居址는 길이 一〇미터 폭 五미터 정도로, 바닥에는 크고 작은 맷돌을 깔아놓은 敷石住居地로서 주위에 노자가 아슬라 발견됨으로써 과거에 發見되었던 이와 같은 遺蹟들이 住居址였음을 확신케 되었다. 이 住居址에서 약 七m되는 곳에는 움집 住居址가 發見調査되었는데 이 움집은 櫛文土器人들이 만든 노기를 반쯤차르고 토광을 판점으로 보아 櫛文土器人들이 살아진 이후의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서울市內에서 李朝白磁 出土

지난 五月 一六일 동국제강(을지로 국립도서관)에서 車庫 工事中 地下 五、

六미터 되는 곳에서 李朝磁器 多數가 發見되었다. 현장은 길이 二〇여미터 폭 一〇미터 깊이 七・八미터로 파내려 갔으며 불도저로 흙을 파올리고 길이를 더 늘리고 있었다. 工事관계자에 의하면 地下五・六미터 되는 곳에서 陶磁器가 나왔으나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계속를 도저로 파올렸는데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파다면 상당량의 完形 磁器가 나왔을 것이라고 한다 수습된 것에는 요형히 깨지지 아니한 白磁항아리(높이 三六・九cm 구경 一五・六cm 저경 一五・六cm) 등 一六世紀頃으로 추정되는 白磁六點이 있었으며 其他 一六一一九世紀에 이르는 白磁 白磁鐵畫文等 破片이 현장에 널려 있고 화장암 장대석이 磁器發見 주위에서 십여개나 나와 흩어져 있었다 遺物은 당국에 申告되어 六日十三日本館으로 移館되었다.

### 百濟 瓦窯址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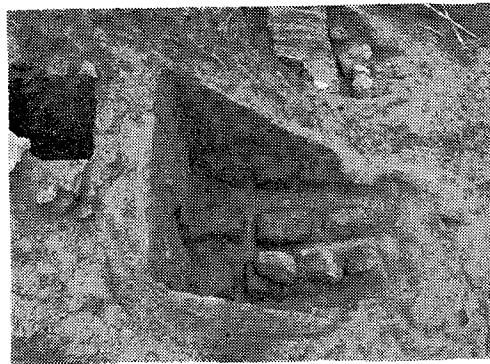
本館 美術課에서는 忠清南道 靑陽郡靑南面 汪津里番一六번지와 山一番地에 있는 百濟時代 瓦窯址 六基를 五月 一三日부터 六月 一日까지 진급 調査하였다 汪津里的 錦江邊 一帶에는 江邊 언덕에 數拾基의 窯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水路의 변경으로 數拾年內에 대부분의 窯址가 유실 파괴되고 現在

七・八基 정도의 遺構가 남아있으며 金甌에는 洪水에 유실될 가능성이 짙은 것 六基(江邊四基 山二基)만을 發掘調査하였다. 六基中 五基는 登窯 一基는 平窯로 모두 粘土質 언덕에 掘을 파서 窯室을 만들었고 굴뚝 上部는 三面을 돌로 쌓아 올렸으며 같은 窯室內에서 窯床은 一次 三次까지의 補修・在構策이 있었다. 登窯에 있어서 계단식도 우리 나라에서 처음 調査 확인된 것이며 특히 層段式 平窯는 특이한 煙室・窯室 火室 焚口를 갖춘 것으로 여기에서는 百濟土器片도 發掘되는 것을 보면 이가마에서는 기와와 土器를 같이 燒造한 것으로 생각되어 百濟土器 燒造의 研究에도 貴重한 資料가 된다 崔淳雨主事下에 鄭良謨 扶餘分館長 姜仁求 權寧弼 李准求 李相洙氏가 參加調査하였다.

### 百濟 武寧王陵 發掘調査

지난 七月 忠南 公州市 西쪽 郊外인 宋山里에서 百濟 武寧王의 무덤이 發見되었다. 松山里에는 玄室 內部에 四神圖를 그린 塼柳墳(六號)을 비롯하여 百濟時代의 石室古墳들이 分布하고 있어서 유명하였다. 이번 政府에서는 그 중 塼柳墳과 그 옆에 위치한 王號古墳을 補修하기 위하여 排水路 工事を 實施하다 그後面에서 우연히 또 하나의 塼柳墳을

發見하게 되었던 것이다. 公州博物館長 金永培氏가 工事 現場에서 처음으로 發見하여 그 보고에 따라 文化財管理局에



扶餘 汪津里 瓦窯址

서 發掘班을 파견 金元龍館長의 指導하에 作業이 進行되었다.

古墳 內部는 뜻밖에 人爲의 인 파괴를 전혀 입지 않은 完全한 處女墳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玄室 人口의 羨道에 誌石 二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銘文에 依하면 이 무덤은 百濟 斯麻王 즉 武寧王의 王妃의 陵임이 판명되었다. 이는 참으로 國民을 흥분시킬만한 우리 나라 考古學史上 最大의 事件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玄室 및 羨道는 아름다운 언뜻 무늬가

他를 새긴 紋들을 사용하여 아치형으로 構築하였으며 左右의 壁에는 二個씩 그리고 北쪽 壁에는 한개의 작은 寶珠形의 壁龕을 만들어 彩色하고 그 속에는 白磁燈臺을 두었다. 燈臺 속에 타다 남은 심지까지 그대로 있었으며 이것이 壹千五百年을 경과한 무덤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玄室 內部의 面積은 南北의 길이 四・七五m 東西闊이 二・七五m 인 入口 쪽에 약간의 장소를 남겨 놓고서는 바닥을 한층 높이고 棺臺로 삼아 東便에 王을 西便에 王妃의 棺을 南枕하여 모셨다. 그러나 유해를 모신 木棺들은 이미 삭아서 원래의 形態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물들은 古墳 內部로 침투한 나무뿌리의 細根들에 依하여 걸점으로 엉켜져 있었으므로 發掘은 지극히 곤란하였다. 出土遺物은 八八種 二五六一點이며 文化公報部에서는 이 중대한 發見을 學術의 학자 층분히 調査시키기 위하여 斯界의 학자 전문가 約二〇名을 동원하여 綜合調査團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現在 이들 방대한 遺物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研究와 또한 科學的 保存에 대한 조치가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 順興에서 壁畫古墳 調査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은 八月 一八日

無量寺 五層塔에서舍利裝置  
發見

忠南 扶餘郡 외산면 만수리에 있는  
無量寺 五層石塔의 解體復原工事中 文  
化財管理局 시행(洪恩俊, 鄭水鎬 감독)  
高麗時代의 것으로 보여지는 靑銅舍利  
裝置의 金銅佛二軀가 들어있는 石盒과  
三軀의 菩薩坐像을 發見하였다.

扶餘分館長 姜仁求氏는 九月六日부터

이唐山은山頂에서물지각한住民들이石器時代의遺物을마구과내어邑內에유출시켰으므로扶餘分館에서는이石器時代의遺物을搬出하는遺蹟을수습정리키위하여調査를進行하였던것이다.이山頂에는교란파괴된石器時代의遺蹟이있고여기에같이百濟時代의藏骨遺蹟이분존해있었다고한다.

藏骨遺構二期를 調査하였다. 遺構의形態는 安반을 원뿔형으로 높고 장갈土器를 넣고 그위에 넓적한 돌을 얹고 흙을 덮었다고 하는데 九 cm 덮인 表土에는 군수리에서出土되는 無文塼과 같은塼片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塼을 덮어 깔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安반을 파낸 石室一號가 직경 五〇 cm 이 五〇 cm 었으며 이속 中央에 직경 一七 cm 높이 一一 cm 의 藏骨土器壺를 놓고 주위에 盒形土器八개가 놓여 있었다. 이一號는 上部는 교란되어 蓋石은 없고 石室內에까지 부식토가侵入되고 土器의 뚜껑등이 깨어져 있었다. 二號는 石室의 길이와 직경이 각 二〇 cm 였으며 盒形土器二點이 石室內에 上下로 포개져 있었고 石室 위는 넓적한 돌로 덮여 있었다. 이러한 遺構와 土器는 百濟時代의 화장병을 나타내는 貴重한 物

## 佛教繪畫調查(續)

中葉의 天王幀 韋駄天幀等이 새롭게 調査되었으며 興國寺에서는 一八世紀中葉의 天龍幀과 帝釋幀 觀音菩薩幀 阿彌陀如來幀等이 새로운 幀畫資料로 調査되었다. 二次로 十一月三日부터 一二일에 걸쳐 興國寺에 對한 本調査를 施行하였다. 興國寺 掛佛은 一七五九年作으로 길이가 一三m 폭 一〇m의 大幅으로 保存狀態도 양호하고 手法도 優秀하였으며 金銀 調査에서는 掛佛대에 奉安하여 完全히 어서 調査할 수 있었다. 大



全南 麗水 興國寺 掛佛

雄殿의 後佛幀은 一六九三年 製作으로 現在까지 調査한 後佛幀中에서 最高의 것으로 構圖·線의 처리·色象이 우수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절에는 古式의 十王幀等이 있으며 三十五點의 幀畫가 調査되었다. 이번 調査에는 崔淳雨 鄭良模 權寧弼 姜友邦 崔完秀 李准求等이 參加하였다.

## 서울 城東區 岩寺洞所在 先史遺蹟發掘調査

國立博物館과 文化財管理局合同으로 一月 一二일부터 十二月 二일까지 二〇여일에 걸쳐 城東區 岩寺洞所在 新石期時代遺蹟을 發掘調査 하였다.

이 遺蹟은 우리 나라 櫛文土器時代의 代表的인 遺蹟으로 一九六七年 韓國大學博物館協會主管으로 여러 大學이 合同으로 發掘한바 있으나 今番 發掘에서는 當時 堅穴住居址 八基를 發見하였으며 各住居址는 二個 내지 三個가 發見된 狀態로 發見되었다. 住居址의 構造는 抹角方形과 圓形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크기는 抹角方形이 一邊 五~六m 圓形의 것이 三자로 前者가 後者보다 크다 두가지 모두 中央에 方形爐址가 하나씩 있으며 반드시 住居址안 西쪽에 礪石이 놓여 있었다. 方形 住居址에서는 그 바깥에 瓦甎이 기둥구멍이 한개씩 있

어 住居址 復原에 貴重한 資料가 되었다. 이 遺蹟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방대한 遺蹟으로 우리나라 櫛文土器時代文化를 해명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城東區 岩寺洞 先史時代 住居址

## 地下鐵工事에 따르는 南大門 保護問題

서울의 地下鐵 第一號線이 南大門 옆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施工 過程에서와 完工後 地下鐵 通過로 인한 진동으로 國寶 第一號인 文化財 南大門 保護問題가 야기되었다. 서울시 당국에서는 地下鐵 建設에 對한 자세가 경제성 원칙만 급급하고 國寶 文化財 保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서 하등의

調査 研究도 없이 文化財保護法에 明示된 승인 要件을 전혀 무시하고 文化財委員會에서는 여기대한 獨者的인 調査 研究와 대책을 협의하여 서울시에 이의를 제시하여 問題가 확대되자 서울시에서는 科學技術研究所 物理學研究室에 형식적인 방진대책을 의뢰하여 文化財委員會에서 이를 報告 받았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대책이므로 이에 대하여 七個항의 건의안을 제시하고 (十月七日) 여기 따라 충분한 調査 研究와 多角的인 방진대책을 마련하여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것을 채택토록하고 이에 대한 報告書를 제출하여 文化財委員會에서 가장 효율적인 方法을 채택할때까지 工事施工을 보류할것을 통보하였다. 여기대하여 文化財委員會에서는 十月 一九日 서울시가 提出한 方案의 原案을 가결하고 八개항의 부대조건을 붙여 이를 준행토록하고 施工에 대한 사후승인의 결 하였으며 文化財보호법위반의 책임을 물어 關係 책임공무원을 문책할 것등을 동시에 결했다.

## 刊行物 紹介

### 「考古美術」一〇九輯 出刊

韓國美術史學會에서는 지난 三월 「考

古美術(季刊)第一〇九輯을 出刊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安二年銘 高麗銅鐘과 小鐘一口 (李永榮)

韓國塔銘考 (金福庚)

佛國寺 石造三尊像 臺座 (文明大)

續石槨古墳發掘調査 (朴日薰)

### 「美學」創刊號 發刊

韓國美學會(會長 金正祿教授)에서는 지난 七月말 그간의 학술연구와 학회사업의 일환으로 學術誌「美學」을 출간하였다. 同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應用美學의 基礎學으로서의 一般美學의 基礎概念 (白琪珠)

Decorative 藝術作品의 本質 (趙要翰)

東洋畫의 題款에 對한 論考 (權德周)

藝術과 祝祭 (林範宰)

高麗時代 藝術의 特性에 對하여 (張文戶)

現代藝術과 美學의 課題 (吳炳南)

藝術史에 있어 樣式의 根源과 變遷에 關하여 (金美鳳)